

충남과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과제

진영환 | 국토연구원 부원장

충남도와 경기도는 道경계를 마주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양도간에 협력이나 공동발전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아산만의 항만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항만명칭에 대한 갈등과 함께 행정구역 경계문제를 가지고 접경지역의 해당 시·군간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에 충남도와 경기도가 지역간 협력을 통하여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역상생발전 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인접도간에 협력과 상생을 위한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개발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양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아산만권 지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남도와 경기도의 광역적 발전을 위한 노력은 1990년대부터 가시화 되었다. 1990년대초 아산만지역이 신산업지대로서 국토공간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항만, 산업단지, 도로, 철도, 배후도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 1993년에 그 당시 건설부 주도로 광역아산만권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동계획에 의하면 수도권의 집중되는 개발압력을 아산만권에서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인천항 대체항으로서 아산 신항을 개발하는 한편, 기업의 산업입지 수용을 위해 포승, 고대, 부곡, 석문 등에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산만권 배후도시로서 천안과 평택, 당진지역에 신도시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새로운 대규모 항만의 건설과 기업의 높은 입지 수요로 볼때 이 지역의 개발잠재력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국 관문항인 아산신항을 중심으로 천안, 아산, 당진, 평택의 첨단산업과 물류, R&D기능을 연계발전 시키면 아산만지역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향후 과제는 과연 해당 지자체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이 지역을 쾌적한 환경의 부가가치 높은 지역

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아산만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밀려드는 기업의 입지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직주근접의 쾌적한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이 이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듯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통팔달의 지역간 간선교통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충청도와 경기도, 그리고 아산시, 천안시,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조성이다. 나아가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의 설치,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의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 추진의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계획수립, 사업집행, 사업평가 및 관리 등 전단계에 걸쳐서 해당지자체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의 개발사업 추진과 비교하여 보다 짧은 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 지자체의 공동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